

2019년 상반기 KREI리포터 운영협의회 결과

작성일: 2019. 3. 25.

1. 회의 개요

- 목 적: 2019년 리포터 운영 계획 논의 등
- 일 시: 2019년 3월 19일(화) 13:30~15:30
- 장 소: 농업관측상황실(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67-4 2층)
- 참 석: 총 25명
 - 원 내(3명): 미래정책연구실 김용렬 실장, 이정민 팀장, 김미리 주무원
 - 원 외(22명): KREI리포터 고정홍, 김애자, 김인남, 김향빈, 김형수, 김후주, 남양완, 박향숙, 박현근, 배익선, 변해동, 송인숙, 심요섭, 유영순, 유영조, 이현순, 임광혁, 임충빈, 장석우, 정태근, 주양호, 최태봉
- 주요 일정

시 간	분	일 정	비 고
12:00~13:20	80	점심식사	아시안키친(오송생명3로 155)
13:20~13:30	10	이동 및 휴식	농업관측상황실(오송생명5로 267-4 2층)
13:30~15:30	120	운영협의회	리포터 운영 계획 논의 등

2. 주요 내용

1) 2019년 리포터 운영 계획 수립

- 지역 및 도별 관심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시, 연 1회 정례화
- 청년리포터 지역간담회 참여 유도, 관심분야 연구원과의 매칭 추진
- 현장의 소리 활용 및 리포터 활동에 따른 피드백 강화
- 리포터 사랑방 사이트 개편(상반기), 리포트 작성 및 댓글 활성화
- 리포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동 거부자 해촉 진행(4월 중)

2)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'현장의 소리' 청취

▶ 농촌 일손 부족, 외국인 근로자 활용

- 도시와 농촌 간의 인력 미스 매치 발생... 인근 대도시와 연계한 일손 수급체계 구축 등 해소방안 강구 필요
-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최저임금 적용은 무리... 인건비 차등 지급 필요
- 계절적 근로자 활용을 위한 법적 제한이 많아 단기계약 종료 후, 불법체류자 고용 여전해... 외국인 근로자 최소 고용기간 늘려야
- 숙식 및 교통비 등 추가 비용에 따라 인력사무소 인건비 중개수수료 높은 편

▶ 농산물 산지폐기

- 폐기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산지폐기 늘어... 시장원리에 맞춰 자생력을 가져야 하는데 보조, 지원이 과도해 일부 '도덕적 해이' 문제가 발생
- 농업으로 소득보장이 어렵다보니 정부 지원사업, 보상금 등 돈 되는 것을 쫓는 현상 발생... 정부 주도하에 품목조직 활성화, 지역 생산할당제 등을 추진해 수급 조절해야
- 정부 주도의 품목 조직화는 농업인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어, 농업인 스스로 자조금을 마련, 주체적인 품목조직을 만들어야
- 농산물 재배면적, 생산량, 수입량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·분석해 수급 안정 정책 마련해야

▶ 미세먼지

- 미세먼지로 인한 햇빛 투과율 감소로 농산물 생육에 큰 지장을 겪고 있어... 비닐하우스 살수 지원 시급
- 실외에서 12시간 이상 일하거나 고령이 많은 농업 근로여건 상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악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... 농작업 시 필요한 마스크 지원,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 지원 필요

- 노후 차량 및 농기계 교체비용 보조, 전기차 보급량 확대, 영농교육 시 쓰레기 소각 등 환경인식에 대한 교육 등 생활 속 사소한 저감 노력해야

▶ **스마트팜 혁신벨리**

- 스마트팜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, 농업인의 시간적·경제적 여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 큰 편... 자본집약적 사업으로 소농의 접근성이 매우 낮고 기업농, 대량 생산되는 품목은 유통구조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
-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노동집약적인 농업이 기술집약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환영하나 사실상 신규사업자는 진입 어려워... 기존 농업인 중 선정해야
-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대한 유치 많아, 농업계 학교에서도 영농기술보다는 스마트팜 적용기술을 먼저 배울 정도... 장기적으로 시설 유지비용, 안정적인 유통관로 장담할 수 없어, 사실상 부채 부담이 가장 큰 문제
-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고령이 되어서도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이 답, 점진적으로 시설을 첨단화해야 할 것
- 스마트팜을 통한 대량 생산량은 내수가 아닌 수출로 유도해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최소화해야

3) **리포터 출범 10주년 기념 연찬회 의견 공유**

- 6월 말~7월 초, 나주 본원에서 개최 고려
- 홈커밍데이(homecoming day)컨셉으로 리포터 10년 돌아보기, 교감을 나누고 리포터 출범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
- 리포터 역사 소개, 리포터 셀프 동영상 상영, 리포터 소감 발표 등 프로그램 추진

4) **2018년 리포터 활동 보고서 공유**

- 리포터 회원에게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,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
- 현장의 소리 활용 및 정책 반영 단계까지 활동 보고서에 담아주길 제안
- 리포터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년 자료를 모아 활동 보고서 발간 예정

3. 이모저모



4. 회의록

(인사)

- 김용렬: 2019년 KREI리포터 운영 계획 및 연찬회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- 정태근: 우리 리포터가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. 전국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. 오늘은 연구원에서 주요 설명과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.

(전문가 초청 간담회)

- 김용렬: 지역별 간담회는 분기별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. 연 1회는 정부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섭외해 역량강화 및 교육, 함께 토론하는 자리 등을 마련하면 어떨까요? 지역에서 요청하면 최대한 전문가를 섭외해 매칭하려 합니다.
- 장석우: 참석이 저조해서는 안 됩니다. 지역이 아닌 도별로 협동 개최해 연구원에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.
- 변해동: 맞습니다. 외부 강사를 초청하기엔 참여도가 저조합니다. 오히려 우리 리포터 회원끼리 교육,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요?
- 임광혁: 전문가 초청이라는 것이 꼭 청중이 있어야 하는 강연이 아니라, PLS 등 제도설명이나 토론 등의 의견 공유를 위한 자리일 것입니다.
- 김용렬: 네, 최신 농정동향 등 연구원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으니 함께 궁금증도 해결해보자는 것입니다.

- 김인남: 경북지회에서는 SNS와 관련해 초청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.
- 김형수: 리포터 중 몇몇은 참여의식이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. 리포터 선정 시 후보자 추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도를 고려해 선정해야 합니다. 충북지회는 간담회 개최 시 그 지역 농업인이나 관계자도 초대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.
- 김애자: 제주는 아주 특수한 지역이라 농업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. 전문가 초빙의 기회가 있다면 중국, 예멘, 러시아, 태국 등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고, 소통할 수 있는 기본 회화 등의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

(청년리포터 활성화 방안)

- 장석우: 분기별 지역간담회 개최 시 청년리포터도 함께 초청해 참여토록 하면 좋겠습니다.
- 김후주: 저희 청년리포터가 지난 해 활동 참여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.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기도 하고, 사랑방 사이트 등 구체적인 활동방법에 대해 모르기도 합니다. 리포터로 위촉 시 활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. 특히 청년리포터의 경우 모두 배워가는 입장에서 생업이 바쁘기도 하고, 농촌에 정착을 완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포터 등 기타 대외활동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. 지역 리포터와 연계해 함께 식사도 하고, 친목을 다지며 자연스럽게 활동을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.
- 임광혁: 기존 리포터와 청년리포터를 구분 짓기 보다는 흡수되어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또 기본적으로는 지역간담회에 소속해 함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.
- 최태봉: 본인 지역 외에 타 지역까지 묶어서 만남을 추진하면 어떨까요? 모든 활동은 친목을 기본으로 한 후에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면 될 것입니다. 청년리포터와 현지통신원 모두가 연계해야 합니다.

(현장의 소리 피드백)

- 임광혁: 이번에 배포된 활동보고서를 잘 보았습니다. 리포터의 역할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, 반영 단계까지 체크해 담아주면 좋겠습니다. 리포터로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.
- 김인남: 동감입니다. 우리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것만큼 자긍심이 커지는 것 없을 것입니다.
- 정태근: 일손부족, 미세먼지 등 최근 이슈 등에 대해 연구원에서 꼭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주목해주길 바랍니다.

(리포터 사랑방 개편)

- 송인숙: 리포터 사랑방 사이트의 네이버 로그인 변동 이후 이용률이 저조합니다. 네이버 가입부터 해야 합니다. 좀더 활성화를 위해 밴드와 연동되거나 로그인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.

- 김미리: 최근 개인정보보호 조치로 인한 소셜로그인으로 바꿨습니다. 밴드와 연동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연구원 메인 홈페이지와의 통합, 사랑방 사이트 개편을 예정하고 있어 말씀하신 불편사항 등을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.

(리포터 운영 개선)

- 임충빈: 리포터 회원의 자질은 정량 분석해서 부진한 회원은 해촉하고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. 임기제로 운영하지 않고 실적제로 운영해야 활성화될 것입니다. 또 사랑방 사이트 댓글을 함께 나누며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. 리포팅 서식을 만들어 현안과 문제점, 대책이 무엇이다, 건의 등의 내용을 정형화해야 합니다. 성의 없는 몇 줄의 리포팅으로 점수를 받고, 리포터 활동했다라는 것은 자질이 부족합니다. 리포터 활동에 대한 활용조치, 댓글의 등급화, 심층적인 현장의견 등으로 리포터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.
- 임광혁: 좋은 아이디어지만, 리포팅을 형식적으로 갖추다 보면 규격화된 의견, 참여도와 접근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.

(주요 농정 현안: 농산물 산지폐기)

- 김형수: 폐기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산지폐기 늘고 있습니다. 시장원리에 맞춰 자생력을 가져야 하는데 보조, 지원이 과도해 일부 ‘도덕적 해이’ 문제가 발생합니다. 정부 주도하에 품목조직을 활성화하고, 지역 생산할당제 등을 추진해 수급 조절해야 합니다.
- 김인남: 정부 주도의 품목 조직화는 농업인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농업인 스스로 자조금을 마련, 주체적인 품목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.
- 박현근: 농산물 재배면적, 생산량, 수입량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·분석해 수급 안정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

(주요 농정 현안: 미세먼지)

- 박현근: 미세먼지로 인한 햇빛 투과율 감소로 농산물 생육에 큰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. 비닐 하우스 살수 지원이 시급합니다.
- 김인남: 실외에서 12시간 이상 일하거나 고령이 많은 농업 근로여건 상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악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농작업 시 필요한 마스크 지원,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.
- 김인남: 화력발전소, 태양광 시설의 난립,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. 개개인의 저감 노력에 앞서 국가적 재난으로서 정부의 환경정책 및 환경 외교가 중요합니다.
- 김후주: 노후 차량 및 농기계 교체비용 보조, 전기차 보급량 확대, 영농교육 시 쓰레기 소각 등 환경인식에 대한 교육 등 생활 속 사소한 저감 노력을 해야합니다.

(주요 농정 현안: 스마트팜 혁신벨리)

- 임광혁: 스마트팜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, 농업인의 시간적·경제적 여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 큰 편입니다. 다만 자본집약적 사업으로 소농의 접근성이 매우 낮고 기업농, 대량생산 유통구조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
- 유영조: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노동집약적인 농업이 기술집약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환영하나 사실상 신규사업자는 진입 어려운 실정입니다. 기존 농업인 중 선정해 지원해야 합니다.
- 김후주: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대한 유치가 많습니다. 특히 농업계 학교에서도 영농기술보다는 스마트팜 적용기술을 먼저 배울 정도입니다. 장기적으로 시설 유지비용, 안정적인 유통관로 장담할 수 없어 사실상 부채 부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
- 박현근: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고령이 되어서도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이 답이라 생각합니다. 점진적으로 시설을 첨단화해야 할 것입니다. 또 스마트팜을 통한 대량 생산량은 내수가 아닌 수출로 유도해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

(주요 농정 현안: 기타)

- 장석우: 중농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높아 한 두달 인력 수급이 시급합니다.
- 주양호: 외국인 없이 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. 인력사무소는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.
- 김인남: 농촌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일자리 확보도 중요합니다.
- 김형수: 계절적 근로자 활용은 법의 제한이 많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. 지자체에서 수요 파악 후 계절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. 현재 인건비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
- 박현근: 인력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.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수용하는 데 어려움 많아 가족농으로 할 수 있는 정도만 규모를 축소하는 곳이 많습니다. 농촌의 70~80%는 불법체류자 고용이라고 예상합니다.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.
- 김형수: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우리나라만 해당됩니다. 독일, 멕시코 등은 해당 국가의 근로수당의 몇 %이하를 주고 있는데, 우리만 우리 법에 따라 줍니다. 외국인 임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.
- 남양완: 인건비 9만원을 지급하면, 인력사무소를 거쳐 당사자에게 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. 인력사무소의 중개수수료가 과다합니다.
- 고정흥: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만 고집하지 말고, 해당 국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- 주양호: 인력사무소의 착취라고 비난 받는데, 이는 사람이 사무소를 해서 가보니 숙식 제공과 차량으로 통근, 이동하는 비용, 난방비 등 지출이 많아 수수료를 낮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.
- 임충빈: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돈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 농업은 노동력 위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.

(연찬회 프로그램 제안)

- 김애자: 리포터 일터 돌아보기 동영상 촬영해 연찬회에서 상영하면 좋겠습니다. 제주회원은

- 제가 책임지고 찍어오려고 합니다. KREI리포터 이름으로 단체티나 모자를 맞추면 어떨까요?
- 이현순: 나주 기공식부터 지금까지 리포터 활동을 사진 편집해 영상을 상영해도 좋겠습니다.
 - 배익선: 지역별 농산물 홍보 부스를 만들어 전시해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.
 - 유영순: 카풀을 이용해 지역 전체적으로 회원과 함께 독려하면 나주까지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 - 김향빈: 밴드공연을 하면 흥을 돋우고 좋을 듯 합니다.
 - 박향숙: 건강관리에 필요한 음식, 약초 등에 대한 강연이 유익할 것입니다.

(기타)

- 김후주: 청년리포터 카톡그룹방을 만들어 공지 및 활동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.
- 김용렬: 리포터 밴드에 청년리포터도 초대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박향숙: 수제 과일잼과 청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. 자격증도 취득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니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.